



08-18 (통권 196호)  
2008.05.09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국제 원유 가격 급등
-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 경영 노트

- '복잡성의 비용'과 경영 간소화

## 사회 트렌드

- 데모테일먼트
- 슬로 메디신(slow medicine)

## 저널 브리프

- 중국 기업과 '음양의 조화'

## 洗心錄

-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

## □ 국제 원유 가격 급등

- 국제 원유 가격 급등세가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글로벌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는 신흥 시장 성장, 원유 공급 차질, 투기 자본 유입 등의 이유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음
  - 원유 가격 상승은 인도 및 중국 등 신흥 시장의 부상과 중동 산유국 산업화 추진, 나이지리아의 원유 공급 차질, 고유가 시대 이전의 원유 추가 탐사와 생산 시설 확충 미비, 투기 자본 유입 등에 기인하였음
  - 현재('08년 5월 8일, 현지시간)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23.69달러(NYMEX, 6월분),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22.84달러(ICE, 6월분), 두바이 현물 가격은 116.48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08년 4월 들어서는 달러화가 유로 대비 2% 가치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예외 상황까지 발생함으로써, 유가 상승이 달러화 약세로 인한 투기 자금 유입이라는 설명도 수정이 필요함

## □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 지식경제부(5월)에 의하면 무역수지는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 수입액 급등 등으로 '07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08년 1~4월까지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59.9억 달러에 달하고, 원유수입액('08년 1분기)은 에너지 수입 총액 대비 60.6%, 총 수입액 대비 19.3%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임
  - '08년 4월 원유 도입 물량은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였으나 도입단가가 58.7% 상승함으로써 원유 수입액은 56.6% 상승하였음
  
- 다만,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08년 2월 12.8억 달러, 3월 8.2억 달러, 4월 0.4억 달러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균형 수지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

□ '복잡성의 비용'과 경영 간소화\*

-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상품의 옵션을 늘여가고 있지만, 이는 복잡성의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이지 못함
  -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는 고객 취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상품의 옵션 패키지는 그 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옵션을 관리하는 데 드는 복잡성 비용은 수익보다 클 때가 많으므로, 많은 선진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 종류를 줄여 사업을 간소화하고 있음
- 상품의 옵션이 적어도 고성장을 이루는 기업의 사례는 많은데 전형적인 것이 델, 도요타, 아멕스 등임

<옵션이 적어도 고성장을 이루는 기업들>

기업명	주요 내용
델 (노트북)	- 델은 한 개 노트북의 모델 옵션이 평균 4개지만 지난 5년간 15%의 매출성장과 23%의 영업이익률을 달성 - 반면, 옵션이 14개인 HP는 매출성장률이 한 자리수이고 옵션이 24개인 레노보는 영업이익률이 6%에 그침
도요타 (자동차)	- 도요타는 모든 자동차 모델의 옵션 수가 총 8,000개지만 두 자릿수의 성장과 9%의 이익을 올림 - 반면, 옵션수가 4만 8,000개인 포드와 옵션수가 8만 3,000개인 GM은 모두 도산 위기에 처함
아멕스 (신용카드)	- 아멕스는 4개 고객군을 대상으로 26개의 신용카드를 제공하지만 11%의 매출성장과 13%의 영업이익을 기록 - 14개 고객군, 155개 카드를 제공하는 메릴랜드 은행과 17개 고객군, 227개 카드를 제공하는 체이스 은행은 모두 수익이 한 자리수임

- 기업은 상품옵션의 증가를 통한 매출 증대의 유혹에서 벗어나 '경영 간소화'의 원칙으로 복잡성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 상품 기획 담당자는 추가 부품과 벤더를 관리하기 위해 늘어나는 복잡성 비용이 예상 매출 증대분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새로운 상품옵션을 추가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옵션의 증대로 인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핵심활동에 주력,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매경ECONOMY(2008.5.7)을 요약, 재구성한 내용임

## □ 데모테인먼트\*

- 데모테인먼트는 시위를 뜻하는 ‘데몬스트레이션’과 연예 이벤트를 뜻하는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
  -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연예인이 등장하는 축제 형식을 빙자한 정치적 집회 성격을 띤 ‘데모테인먼트’로 호르고 있음
  - 중·고등학생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확치 않은 정보에 현혹돼 친구들과 함께 연예인과 쇼를 보기 위해 집회에 나서고 있음
- ‘집회의 폭력성’이 사라진 점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참가자들이 감성적으로 집회에 참가해 군중심리를 ‘즐기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됨
  - 효순·미선 촛불집회 때만 해도 촛불을 드는 것은 엄숙한 정치적 동원의 의미였는데, 2003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부터 촛불집회가 축제, 놀이의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분석

## □ 슬로 메디신(slow medicine)\*\*

-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병을 앓는 고령의 노인들이 고통스런 치료를 받는 대신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슬로 메디신’ 운동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함
  - 뉴햄프셔 켄달 실버타운에 들어오는 노인들은 간호사에게서 "암 판정을 받으면 치료를 받겠느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함
  - 간호사는 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말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지만, 생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치매를 악화시킬 마취의 위험도 무릅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줌
  - 노인들은 죽음 막바지에 인공호흡기를 달지, 심폐소생술을 받을지, 진통제를 쓸지 여부도 선택하게 된다고 함
- 이 실버타운 설립자인 닥터머스 의대 교수 데니스 매컬러는 무의미한 연명(延命) 치료가 고통스런 삶의 연장에 불과하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막는다고 주장
  - 그는 말기 환자에게 덜 공격적인 치료법과 덜 돈이 드는 접근법을 ‘슬로 메디신’이라고 부름

\* ‘데모테인먼트 판친다’(한국경제신문, 2008.5.8일자 기사)를 요약 정리

\*\* ‘슬로 메디신’(조선일보 만물상, 2008.5.9일자 기사)을 요약 정리

□ 중국 기업과 ‘음양의 조화’\*

- 중국 경제계에는 여성CEO와 남성CEO간의 ‘찰떡궁합’으로 기업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매우 많고, 이러한 ‘음양의 조화’는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중국 기업에는 여성과 남성 경영자가 짝을 이루어 기업을 발전시킨 사례가 매우 많은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은 중국 특성에 기인함
  - 여성CEO들은 기업 경영관리에서 남성과는 다른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들 세심하고 너그럽고 사교적이며 상호 조화와 평등의식을 강조
- 중국 최고경영자 층에서의 상호보완적인 ‘남녀 조합’ 사례는 하이얼, 화웨이, 하이신, 거리그룹, 거인그룹, 레노버, 소호 등임

<최고경영자 ‘남녀 조합’의 대표 사례>

기업	여성CEO	남성 파트너	주요내용
하이얼	양멘멘	장루이민 (창업자)	- 양멘멘은 장루이민의 창업한 하이얼을 중국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함
화웨이	순야광	런정페이 (전 이사장)	- 순야광은 런정페이가 일관되고 정확한 판단을 하게 돕고 화웨이의 위기 때마다 헌신적으로 앞장섬
하이신	위수민	저우허우젠 (이사장)	- 위수민은 시장에 대한 뛰어난 감각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저우허우젠의 부족한 추진력을 보완함
거리그룹	동밍주	주장홍 (이사장)	- 동밍주는 도전의식, 과감한 결단력, 개척정신으로 판매를 관장하고 주장홍은 기술을 관장하는 상호보완을 실현함
거인그룹	류웨이	스위주 (회장)	- 류웨이는 이성적인 반면, 스위주는 모험정신이 강하여 류웨이는 스위주가 충동적일 때 한발 물러서게 함

- 최고경영자 층에서도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여성에게 기회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열린 경영이 필요함
  - 여성이 전 세계 기업계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위 경영층의 비중은 여전히 낮아 여성의 장점을 기업경영에 접목하는 한계요인이 됨
  - 적절한 여성 고위 경영층의 활용은 조직내의 감성과 유연성, 섬세함, 열정을 보완하여, 남성 경영층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장점이 있음

\* 이 글은 『이코노미스트』 (2008. 4.29)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로 “귀족의 의무”란 뜻이다. 귀족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는 “부유하거나 명예가 높거나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거나 그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 중 하나는 한 사회의 선진화 정도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는 참여하는 주체들이 경제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만 부산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이론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패자가 되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패자가 영원히 패자인 한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공동체가 사라진다면 승자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자들을 도와주는 수단은 그 사회의 혜택을 받은 승자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들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승자는 그들의 부담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소극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나 직접적으로 패자를 돕는 일종의 적극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승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그 사회는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오늘날 선진사회라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높은 소득세율과 시민들의 빈번한 자원봉사나 기부행위가 이를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왜 미국이 여전히 최고의 선진국으로 간주되고 있고, 중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무서운 성장세 앞에서도 그 잠재력이 높이 평가받는지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공한다. 2000년대 초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할 방침을 정했을 때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같은 미국 최고 부자들은 자비를 들여 이에 반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적이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들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증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 사회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얻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버릴 줄 아는 것이다.”**

- 그라시안(1601~1658) ; 17세기 에스파냐의 작가, 프랑스 모랄리스트의 선구